

나아만 장군

-열 번째 이야기-



77Page



78Page



79Page



80Page

나 레 이 션 이스라엘 가까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아만은 아람 나라의 아주 높은 군대 장군이었어요. 아람의 왕은 나아만 장군을 아주 사랑하고 아꼈어요. 하지만 나아만 장군은 문둥병자였어요. 문둥병은 아주 무서운 병이어서 감각을 느낄 수 없게 되고, 손가락과 발, 눈썹이 떨어져 나가도 아무 것도 느낄 수 없게 된답니다. 나아만의 집에는 이스라엘에서 잡혀 온 어린 여종이 있었어요.

소 녀 장군님이 우리 고향의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 문둥병을 고칠 수 있어요. 엘리사 선지자님이 꼭 하나님께 기도해 주실거예요. 소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아 내 정말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단 말이니?

소 녀 그럼요, 고칠 수 있어요.

나 레 이 션 나아만의 아내는 남편에게 소녀의 말을 전했어요. 나아만 장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나 아 만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어서 가자.

나 레 이 션 나아만 장군은 곧 이스라엘 나라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줄 선물도 아주 많이 마련해서 길을 떠났어요. 드디어 나아만 장군은 부하들과 함께 엘리사 집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보이지 않고, 하인이 나와 나아만에게 엘리사의 말을 전했어요.

하 인 요단 강으로 가서 몸을 일곱 번 씻으시면 몸이 깨끗해진답니다.

나 아 만 네 주인은 어디갔느니 건방지구나. 감히 아람의 장군이 찾아왔는데 하인을 내보내다니. 그리고 우리나라 강이 요단강보다 더 크고 깨끗한데, 고작 요단강에 몸을 씻으란 말이나? 여봐라 당장 아람으로 돌아가자!

나 레 이 션 나아만 장군은 크게 화가 났어요. 하지만 그의 하인들이 말했답니다.

하 인 장군님, 요단강에서 몸을 일곱 번 씻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에요. 이 먼 곳까지 왔는데 속는 셈 치고 한번 가보시죠.

나 레 이 션 나아만 장군은 하인들의 말을 듣고 요단강으로 갔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나아만 장군이 여섯 번째 들어가서 씻었지만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었어요.



81Page



82Page

그런데 일곱 번째 몸을 씻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이 깨끗이 나았고, 상처가 나고 진물이 났던 곳은 새살이 하얗게 돌아나와 있었어요.

나 아 만 오오 세상에!!

사 람 들 사람들 “아니, 세상이 이런 일이!!”

나 레 이 셴 그 일로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 선지자에게도 너무나
감사했어요.

나 아 만 엘리사 선지자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부터 저를 낮게 해주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약속합니다.

나 레 이 셴 그렇게 나아만 장군은 기쁘게 자기 나라로 돌아갔답니다.